

아프리카 인수 감염병... 38도 급성발열, 온몸에 발진증상

(사람과 동물)

‘원숭이 두창’ 오해와 진실

잠복기 최대 21일 코로나 보다 긴 편
발열·발진 등 증상 2~4주 지속

동성애자 성관계 행위 등에 감염
바이러스 밀접 접촉도 감염 경로

영국·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총 27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원숭이두창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으로 지난 22일 밝혀졌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실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생한 인수(사람과 동물) 공통감염병이다.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등 국가에서 보고되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며 풍토병화되었다.

올해 5월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 미국과 같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원숭이두창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 38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으로 시작돼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 특히 사지로 퍼진다. 증상은 보통 2~4주간 지속된다.

발진으로 피부병변이 일어나 눈에 보

이는 질병이라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기 쉽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복기가 길어 발병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채로 입국했다면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어서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소 5일에서 최대 21일로, 코로나19보다 긴 편이다. 검역에서 의심증상에 관해 건강진단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숨기면 찾아내기 힘들다.

입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 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 본인으로부터 건강상태와 관련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가 동성애자들 간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는 것이다. 원숭이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파티에서 벌어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WHO 관계자의 가설과, 영국 보건안전청(UKHS A)이 이달 21일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동성애, 양성애 남성들에게 백신을 맞으라는 권고를 내놓은 데서 볼거졌다.

그러나 키스나 성관계와 같은 행위도 감염 경로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의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만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등에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밀접한 접

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기 중 전파에 관해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한편, 국내에서도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과 같은 검역을 통해 감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검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이 원숭이두창 관련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 총 27개국을 지정했다. 발열기준을 낮추고 감시도 강화한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입국자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확진이 빈발하는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상위 5개국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한섬 ‘시스템 스튜디오’ 영상 내일 공개

‘2023년 S/S 파리 패션위크’ 참가
영화 ‘로얄 테넌바움’ 콘셉트로
캐릭터 오마주 의류 150종 구성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오는 25일 ‘2023년 S/S 파리 패션위크’를 통해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오므의 글로벌 에디션 ‘시스템 스튜디오’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파리 패션위크는 런던·밀라노·뉴욕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한섬은 파리 패션위크에 지난 2019년 F/W부터 매 시즌마다 참가하고 있다. 이번이 연속 8회째 참가다.

이번에 선보이는 시스템 스튜디오의 2023년 S/S 컬렉션은 전세계적으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영화 ‘로얄 테넌바움



시스템·시스템오므의 글로벌 에디션 ‘시스템 스튜디오’. /한섬

(2002년 작)을 콘셉트로 해, 영화 속 캐릭터들의 스타일을 오마주(존경의 표시)로 거장의 업적을 인용)한 의류 150종으로 구성된다. 영화의 다채로운 색깔을

디자인에 반영한 오버사이즈 재킷과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 등이 대표적이다.

시스템 스튜디오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은 오는 25일 오후 9시에 파리패션위크 공식 사이트에 선보여진 이후 시스템스튜디오 공식 사이트, 공식 SNS 채널, 한섬의 공식 온라인몰인 더한섬닷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시스템스튜디오는 기존 아시아권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인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소재 활용 방식으로 파리 현지 패션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섬은 2019년 처음으로 파리패션위크에 시스템스튜디오를 선보인 이후 프랑스 백화점인 프랭팡, 라 사마리텐, 캐나다 허드슨베이, 글로벌 온라인 편집숍 센스 등 20여 개국 60여 개 패션·유통업체와 흡세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은미 기자

대웅-서울대, 동물의약품 공동개발 맞손

합작회사 설립 업무협약 체결

대웅은 지난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동물의약품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윤재춘 대웅 대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한호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동물의약품 개발,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전문 기업 설립 및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양사는 향후 3년간 중간엽줄기세포(MSC) 치료제 연구 및 효능 연구, 개/고양이 유전병 치료제 개발,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가기 효능

검증 및 연구,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수의과대학 교수진의 참여를 통한 당사자 간 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전문성과 입지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의약품 자체 신약 개발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선두주자 지위를 선점해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적 헬스케어 관리 전문업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대웅은 자회사 대웅제약, 대웅팻, 아피셀테라퓨틱스를 중심으로 줄기세포 플랫폼 DW-MSK 등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원은미 기자

매일유업 ‘우유안부’ 광고, 칸 광고제 수상

매일유업은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칸 광고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액티베이션 부문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이번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에는 우유안부 캠페인의 수혜자들이 직접 출연했다. 연예인이 아닌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는 대신 ‘매일 받는 우유가 큰 위안이 된다’는 수혜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우유안부 캠페인의 취지와 역할을 알리고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우유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발상과 캠페인을 통해 일반 고객의 기부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으

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우유안부는 매일유업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2022년 5월 기준 3494명의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는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되,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후원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단법인 홈페이지 혹은 우유안부닷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6월 24일(금)
음력 :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1~28℃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